



2025년 4월 25일

Weekly Macro, 무엇을 봐야 할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helloym@kiwoom.com

키움증권 

미국 펀더멘털 흐름에 주목

다음 주에는 미국 펀더멘털에 관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들과 1 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하는 1 분기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전분기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금융시장 내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전분기 연율 0% 초반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해 4 분기에 비해 둔화된 수치이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미국 노동시장 지표들은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4 월 ADP 민간고용이나 비농가 신규고용 모두 지난 달보다 줄어든 10 만 명 초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4.2%에서 머물겠지만 노동 수요 둔화의 영향이 점차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고 고용 역시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 주로 맞춰져 있지만 선구매에 따른 재고 축적 등을 고려할 때 수요 둔화가 지표로 좀더 빨리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고려할 때 6 월 FOMC 에서 연준의 추가 금리 전망은 아직 유효해 보인다.

다음주 주간 매크로 이벤트 (4/28~5/2)

| 일자 | 주요 경제지표 일정 및 이벤트 | 컨센서스 | 이전치(잠정치) |
|-------------|---------------------------|-------|----------|
| 4/29 | 美 4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 | 87.0 | 92.9 |
| | 美 3 월 JOLTs 구인건수 | - | 7,568K |
| | EU 4 월 소비자기대지수 | -15.1 | -16.7 |
| 4/30 | 美 4 월 ADP 취업자 변동수 | 128K | 155K |
| | 美 1 분기 GDP 성장률(잠정치, QoQ) | 0.2% | 2.4% |
| | 美 3 월 개인소득(MoM) | 0.4% | 0.8% |
| | 美 3 월 개인소비지출(MoM) | 0.6% | 0.4% |
| | 美 3 월 PCE 물가지수(YoY) | 2.2% | 2.5% |
| | 美 3 월 근원 PCE 물가지수(YoY) | 2.6% | 2.8% |
| | EU 1 분기 GDP 성장률(잠정치, YoY) | - | 1.2% |
| 5/1 | 中 4 월 차이신 제조업 PMI | - | 51.2 |
| | 美 4 월 ISM 제조업 PMI | 48.1 | 49.0 |
| | 韓 4 월 수출 (YoY) | -2.0% | 3.1% |
| 5/2 | 韓 4 월 무역수지 (YoY) | - | \$4,985M |
| | 美 4 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 130K | 228K |
| | 美 4 월 실업률 | 4.2% | 4.2% |
| 연준위원회 발언 | 韓 4 월 CPI (YoY) | 2.1% | 2.1%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